

• 테마기획 III

주요국의 해외대학 유치현황과 시사점

이병욱 |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
강수정 | 전국경제인연합회 연구원

I. 요약

◎기업의 글로벌인재 수요에 부응하고 해외로의 두뇌 유출을 방지 및 교육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외대학(분교)의 국내유치 제도 개선이 시급

- 2000년도 이후 해외유학 인구와 유학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자녀를 무작정 해외로 유학시키는 '교육 엑소더스(exodus)'현상 심각
- 해외연수 및 여행인구 급증으로 우리나라 서비스수지 적자규모가 2003년 74억 2천만 불에서 2006년 187억 6천 불로 크게 증가

- ◎두바이 · 싱가포르 등은 적극적인 교육개방과 해외대학(분교) 유치를 통해 자국 내 우수학생의 해외유출을 막고, 세계적 수준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연구 · 교육 중심의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우리나라는 제주도 · 송도 등 경제자유지역에 해외 교육기관 유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2007년 현재 광양에 단 한개 대학분교(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 만이 설립 될 예정임
- ◎해외대학들이 우리나라에 분교를 설치해 벌어들인

표 1. 주요국 해외대학 유치 환경 비교

	두바이	싱가포르	중국	한국
과실송금	가능	가능	가능	불가
영리학교 법인설립	가능	가능	가능	불가
세 금	세금 면제	세금 면제	세금 면제	수익사업에 대한 세금 부과
기타 혜택	· 부지 무상제공 · 민간기업으로부터 자금 조달 가능 · 유학생에게 졸업후 입사를 전제로 장학금을 주는 '기업 스폰서' 제도 운영	· 부지 무상제공 · 연구비 50%지원 · 정부부처가 비용차입을 위한 재정보증 등 행정적 편의 제공	· 부지 무상제공 · 건설비용 제공 · 민간기업(영리법인)과의 합작설립 허용 · 해외인재 유치 장려금 지급(베이징시)	· 지자체가 홍보 및 학생 유치 지원 · 설립비용 부분지원
성과	· 미시간, 호주 울릉공대 등 20개 대학 유치 · 87개국 출신의 유학생 유인 · 증가('07년 만 명)	· 스탠퍼드, MIT, 존스홉킨스 등 35개 대학 유치 · USB, 도이체방크 등 다국적 금융기업들이 인재유치를 위해 아시아본부를 싱가포르 옮김	· 스탠퍼드대, 노팅엄, 해로스쿨 분교 등 100개 이상 해외대학 유치 · 교류 · 민간자본 유입을 통한 교육 경쟁력 강화	· 광양 네덜란드 물류대학 분교(1개) 설립 추진 중

수입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없는 '해외로의 과실송금 불가' 등 각종 규제와 재정적 부담이 대학(분교)유치를 어렵게 하는 주요 애로요인으로 작용

-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에 의해 해외로의 과실송금이 불가능한 실정임

- 또한 교육부의 사전승인을 받은 비영리 외국교육기관만이 외국인 학교 설립이 가능하며, 사립학교법에 의해 학교법인의 차입행위가 제한되고 있어 해외대학(분교)유치에 어려움

- 학교시설을 담보로 할 수 없고, 차입금액에 따라 허가·신고제로 운영

- 외국 고등교육기관의 유치는 경제특구와 국제자유도시는 물론 지방 중소도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조건임

- 호주는 유학생을 적극 유치해 국제학생의 등록금이 양모 수출액을 앞지를 만큼 국제수지를 개선하는 효과를 보았음

- 해외대학(분교) 유치는 급증하는 해외유학 및 영어사교육비로 인한 적자규모를 완화하고, 해외로의 인재유출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해결책 가운데 하나임

- 이에 우리나라 교육경쟁력 강화와 학교설립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해외로의 과실송금 허용 등 각종 규

제완화가 요청됨

- 외국 교육기관 유치를 위해서는 영리법인을 인정하고, 수익을 합리적으로 관리·소유·송금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함

- 또한 국내 대학들은 외국 명문대 학생들이 한국에서 학문적인 성취를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분교 유치 전략 수립 필요

- 미국 아이비리그 명문대들은 금전적인 인센티브보다 분교 학생의 요청에 따라 해외에 분교를 설치하는 경향이 지배적

- 한국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외국학생들에게 먼저 보여줄 수 있는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음

II. 해외대학 유치의 필요성

검토배경

- 세계화시대에 글로벌 인재양성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이나 우리나라 고등교육 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황임

- 2006년 더타임스 선정 세계 200대 대학에 한국 대학은 3개로 미국 대학의 5% 수준이며, 2007년 IMD 국

표 2. 국가별 고등교육 경쟁력 지표 비교

구분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한국
The Times 선정 2006 - The World's Top 200 Universities -	55개	7개	11개	3개
Newsweek 선정 2006 - The Top 100 Global Universities -	43개	5개	5개	없음
IMD 국가경쟁력 평가 2007 - 교육부문 순위 -	13위	8위	14위	29위
- 대학교육이 경쟁사회 요구에 부합하는 정도 -	8위	7위	15위	40위
- 대학과 기업의 지식교류·이전 정도 -	6위	8위	13위	21위

* 자료 : The Times(2006), Newsweek(2006), IMD(2007).

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교육부문 수준은 29위임

- 싱가포르·두바이·중국 등 주요 경쟁국들은 최근 정부의 적극적인 교육개방정책과 지원으로 해외대학 분교를 유치함으로써 글로벌 우수인재 육성을 장려

-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은 전 국민적인 높은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타 국가와 비교하여 '질'이 떨어지며, 글로벌 시대 국가핵심 경쟁력이 될 우수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국가경쟁력 저해요소가 될 두뇌유출을 막고 글로벌시대에 요구되는 인재양성과 미래사회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됨

서비스수지 개선 및 고급두뇌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해외대학(분교) 유치 및 교육분야 경쟁력 강화가 요구됨

- 2000년도 이후부터 해외유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해외 유학·연수비용도 증가 추세임
 - 우수학생이 많은 외국어고와 자립형 사립고 졸업생 중

해외 유명 대학 진학자 수가 서울대 진학자 수를 추월

- 해외유학 등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 서비스수지 적자규모가 2003년 74억 2천만 불에서 2006년 187억 6천불로 크게 증가

- 상품을 팔아 번 돈으로 해외여행·유학으로 지출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향후 지속적인 경제성장 전망 어려움

-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생산성을 100이라 하면(2004년 기준), 미국은 252.2, 영국 154.6, 일본 187.6으로 주요 선진국들의 절반 수준임

- 해외로 유학을 떠난 고급인재들이 국내로 돌아오지 않는 두뇌유출현상(brain drain) 심화

- 특히 한국출신 이공계 미국 박사학위 취득자들 중 미국에 정착하는 비율은 1992~95년 20.2%, 1996~99년 31.3%, 2000~2003년 46.3%로 매년 증가추세

- 고급 두뇌의 해외유출에 따른 핵심기술 부족 등으로 우리나라의 기술료 수지 적자규모는 1981년 9530만불 적자에서 2005년 29억불 적자로 30.4배로 급증(2007, 삼성경제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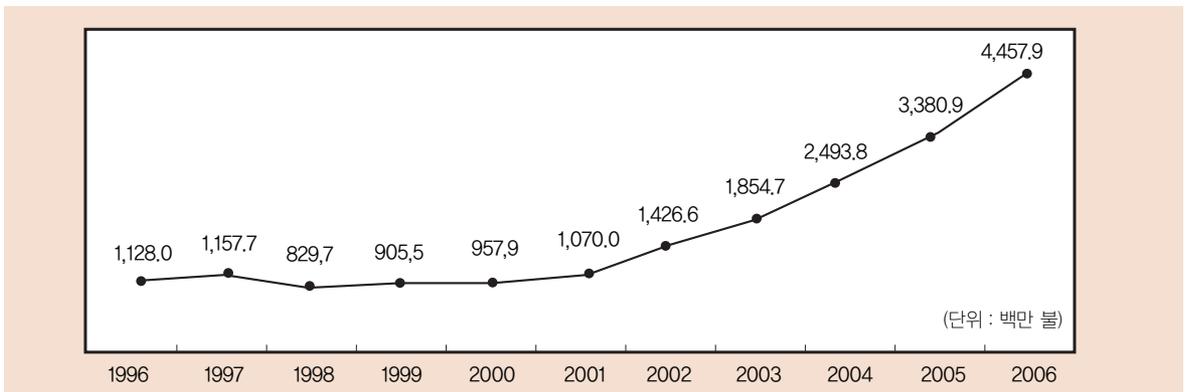
- 지식기반형·산업교역형 기업도시의 착공이 2007년

표 3. 국외 유학생 수

(단위 : 명)

구분	1999	2001	2003	2004	2005
대학(원)	120,170	149,933	159,903	187,683	192,254
초중고	1,839	7,944	10,498	16,446	20,400
계	122,009	157,877	170,401	204,129	212,654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재외동포교육과



* 자료 : 한국은행

그림 1. 유학·연수비용 추이

표 4. 외고·자립형 고등학교 학생의 대학진학 변화

(단위: 명)

구 분	2006		2007	
	서울대	해외대학	서울대	해외대학
외국어고	262	199(39)	254	278(54)
자립형 사립고	67	52(18)	67	93(21)

* 자료: 동아일보, ()는 아이비리그 대학 진학자 수

표 5. 서비스수지 적자규모 추이

(단위: 천만 불)

구 분	등록금	전입금	기부금	2006년	2007년 (상반기)
적자규모	742	805	1,366	1,876	약 2,000이상 (1,058)

* 자료: 재정부

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외부로의 인력유출이 심화됨에 따라 교육시설 인프라 및 관련 인적자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로 계획된 원주·충주는 첨단산업연구단지 건설·유치와 우수 인적자원의 확보가 시급

- 최근 원주는 지역인재가 해외·수도권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심화되어 연세대 분교와 강원대를 통합하여 대학 경쟁력을 강화 대책마련을 하기도 함

• 글로벌 인재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대학(분교)의 국내 유치를 통한 우수 외국인 학생 유인과 한국내에서 국제적 감각의 교육을 받은 인재 양성이 요구됨

- 100대 기업의 글로벌 인재 채용 계획은 54.1%였으며, 그 중 해외 유학과를 채용하겠다는 기업은 92.5%임 (2006, 잡코리아)

- 삼성전자·LG전자·LG필립스 등의 기업들은 미국 등 현지에서 수백 명 단위의 해외유학생 채용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싱가포르·두바이 등은 적극적인 교육개방과 해외대학(분교) 유치를 통해 자국내 우수학생의 해외유출을 막고, 학생들에게 세계적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음

- 연구·교육 중심의 지식기반사업을 육성하여 세계적 수준의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Ⅲ. 두바이·싱가포르·중국 등 주요국 사례

두바이의 '비즈니스 허브'를 위한 Knowledge Village

• 인재가 풍부해야 선진 외국기업을 끌어들이 수 있다는 발상에서 대규모 백화점식 대학타운 'Knowledge Village' 설립

- 두바이는 MS·IBM·3M 등 외국계 기업들로 구성된 '비즈니스 허브'를 뒷받침할 만한 인재가 필요하다는 전략에서 미국 미시간대, 호주 울릉공대 등 20여개 해외 유명 대학의 단과대학을 한 캠퍼스에 유치

• 경영대는 미국의 교육기관이, 공대는 독일의 교육기관이, 음대는 프랑스의 교육기관이 담당하는 식으로 해외 단과대학을 한자리에 모아 거대한 종합대학을 만드는 모델을 도입

- 두바이 날리지 빌리지의 학생 수는 해마다 2-3배씩 증가 추세

· '03년 2천 명 → '07년 1만 명 → '12년 2만5천 명 학

생 증가 예상

- 철저히 기업들의 Needs에 부합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있음

· 예를 들어 IT 관련 기업이 늘어나면 IT관련 단과대를 새로 유치하거나 관련 대학의 정원을 늘리는 방법을 이용함

· 해외 교육기관으로부터 세금을 받지 않고 토지도 무상으로 제공, 학교의 소유권도 100% 인정, 등록금 수입의 본국송금 가능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 도입

- 학교 설립에 자금이 부족할 경우 두바이의 산업타운인 인터넷시티(IT기업 타운), 미디어시티(미디어 관련 기업 타운) 등에 입주한 기업으로부터 자금조달 가능

- 기업들은 대학이 벌어들이는 수입의 일부분을 가져갈 수 있고 또 기업에 필요한 맞춤 인재를 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 협조

싱가포르의 지식기반사업 활성화를 위한 해외대학 유치

· 1998년 미래 사회를 주도하는 국가로 변모하기 위해 「Industry 21」계획을 발표하고 지식기반사업 경쟁력강화에 노력

- 향후 10년 내에 지식기반사업을 싱가포르 GDP의 40% 수준으로 설정, 연간 20,000~25,000여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함

- 세계적 수준의 다국적 기업 유치와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세계적수준의 인력 양성에 노력하고 있음

· 연구 및 교육의 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10개 대학을 유치하는 World-Class Universities Program(WCU) 추진

표 6. 싱가포르의 외국대학 유치 현황

2007. 10

대학명	국적	내용
INSEAD	프랑스	1998년 아시아 최초로 경영대학원 설립을 결정, 2000년 독자분교를 설립하고 개교(1년 MBA 과정, 고급 경영자 과정)
MIT	미국	1998년 NUS 및 NTU와 제휴, 컴퓨터과학 및 공학 대학원과정 설립 합의, 세계적 수준의 공학 연구 강의
Johns Hopkins Univ.	미국	1998년 NUS와 제휴, 싱가포르 진출 결정 2003년 NUS와 제휴, 'Bio Polis'내 해외 최초로 분교 개설기로 발표 - 의학/생명공학 분야 공동 교육 및 연구 실시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미국	1999년 NUS와 제휴, '아시아/태평양 물류 연구소' 설립기로 합의, 물류과학의 대학원 과정 등 제공 - Leaders in Logistics 프로그램, 물류서비스 향상 연구
Wharton School of the Univ. of Pennsylvania	미국	1999년 SMU와 Wharton/SMU 연구센터를 공동 설립, 국제 경영대학원 연구 과정 제공, 아시아에 적합한 경영이론 공동 연구
Technische Universiteit Eindhoven	네덜란드	NUS와 제휴, 기계공학의 대학원과정 제공 - 디자인 분야 공동 연구, 강의, 기술디자인분야 학위과정 - Design Technology Institute 설립
Technische Universitat Munchen	독일	NUS와 제휴, '독일 과학/기술연구소' 설립 공업화학 분야에서의 대학원 과정 제공
Shanghai Jiao Tong Univ.	중국	중국NTU와 제휴, 해외 최초로 분교 개교, 2003년부터 NTU의 비즈니스스쿨에 MBA과정 개강
Univ. of New South Wales	호주	2007년 3월 아시아 캠퍼스 개교 - 무역·응용과학·공학·국제학·디자인·미디어 등 6개 과정 운영
University of London	영국	Standfield에 속해있는 영국대학 분교로 2007년 현재 약 2,500명의 외국학생 등록

기타 : Univ. of Chicago Graduate School of Business, Duke Univ., Stanford Univ., Hawaii Univ., Minnesota Univ., Sanfrancisco Univ., Miami Univ., Broward Community College, Univ. of Wales 등 총 35개

* NUS : National Univ. of Singapore, NTU : Nanyang Technological Univ. ,
* SMU : Singapore Management Univ., NUH : National Univ. Hospital

- 세계적 수준의 인적자원을 양성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역할을 담당할 대학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목적으로 추진

• 정부 각 부처는 외국 대학의 유치를 위해 대학부지 알선, 비용차입을 위한 재정보증 등 각종 행정적 편의를 제공
- 외국대학의 과실송금을 허용하고, MIT와 파트너인 싱가포르 대학에 각각 1억불씩 지원

- UBS, 도이체뱅크 등 다국적 금융기업들이 싱가포르 대학의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아시아 본부를 싱가포르로 이동함

• 해외대학 분교 설립, 싱가포르 내 대학과 제휴, 합작 투자 연구소 설립, 교육과정 공동 운영 등의 형태로 진행
- Chicago와 Insead 대학은 싱가포르 내에 분교를 설립
- 기타 NUS(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NTU(National Technological University), SMU(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등 합작투자 형식으로 연구소를 설립하거나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

중국의 고등교육 민영화와 해외대학 유치 노력

• 국립대학의 민영화 실험 : 독립학원(Independent College)

- 독립학원은 특정 국립대학이 소속 단과대학이나 분교를 민간기업 등과 합작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사실상 민영 4년제 대학임

• 독립학원은 국립대학이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대학의 일부를 독립법인으로 아웃소싱하여 이사회의 지도 아래 학교장 책임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새로운 모델의 대학으로 1990년대 말부터 생겨나 빠른 속도로 확산

※ 절강대학의 성시학원 사례

- 1997년 7월 설립, 출범 6년제인 2005년 현재 학부 재학생이 1만여 명에 달하는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산하에 7개 단과대학과 1개의 학과, 5개의 국제 합작프로그램을 비롯한 35개의 전공을 보유하고 있음

- 그 중 호주, 뉴질랜드의 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제합작프로그램은 일반대학에 비해 몇 배나 비싼 등록금(2004년 신입생의 경우 1년 25,000~28,000 위안)에도 불구하고 큰 인기를 모으고 있음

- 2005년 7월 현재 독립학원은 294개, 재학생 규모는 2004년말 기준 110만~140만명으로 추산, 이는 중국 전체 학부 재학생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임

- 규정이상의 과도한 학비 징수(일반대학의 3배 이상), 투자원금을 회수할 수 있어 대학을 기업화한다는 비판도 있으나 국립과 민영의 장점을 모두 갖춘 독립학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중국 Ningbo시의 영구 노팅엄대학 Ningbo분교 유치

- Ningbo시는 노팅엄 Ningbo를 유치하기 위해 도심 한가운데 있는 땅 17만 8,400평을 무상으로 제공, 건설비용은 사립학교 법인 완리그룹이 Ningbo분교 소유권을 노팅엄대학과 나누는 조건으로 부담

- 실제 노팅엄대학이 투자한 비용은 커리큘럼 개발비용 교수 인건비 등 4,000만 파운드(739억 원)에 불과하며 교수 전원이 외국인임

- 노팅엄 Ningbo는 학부과정 모집정원의 50%가량을 Ningbo 지역 학생들에게 할당하여 선발한 결과, 2003년 이후에는 Ningbo시의 우수학생이 상하이 등 대도시로의 이탈 감소

• '04년 스탠퍼드대, '05년 영국 해로스쿨 등 중국에 있는 외국인과 서구식 교육을 지향하는 자국 국민을 위해 사립학교와 유명대학 분교를 100개 이상 유치

- 장쑤(江蘇)성 쑤저우(蘇州) 공업원구는 싱가포르대학 등 20여개의 해외대학 분교가 입주하는 '국제대학촌'을 건설

- 올해('07년)까지 12만명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목표로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혜택 및 의료보험제도 등을 도입

- 해외대학 유치를 위해 학교부지 및 건물건설 비용을 무상지원

- 북경대는 하버드대 등 28개 대학과 178개 분야, 상해교통대학은 옥스퍼드대 등 17개 대학 62개 분야, 저장대

학은 예일대 등 15개 대학 32개 분야에서 교류 중

우리나라의 해외대학(분교) 유치 현황

- 우리나라는 2007년 11월 현재 광양에 네덜란드 해운 물류대학 단 한개만 설립예정임
 - 네덜란드 로테르담 해운물류대학(STC-R. Shipping and Transport College in Rotterdam) 한국 분교 개교 추진
 - STC-R은 유럽내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물류분야 특화대학으로 1833년에 개교해 학부과정을 비롯하여 다양한 과정의 커리큘럼을 운영
 - 2008년 3월 대학원(석사) 과정 개설, 학부과정은 대학원과정 운영 성과를 지켜본 뒤 2010년 이후 도입할 예정
 - 장·단기 연수과정은 20개로 각 15~30명을 선발, 물류수송·해운대리업·물류관리 등이 강의되고 인근 대학과의 학점 교류제도 실시할 계획
 - 외국 학생들이 절반 이상이며, 향후 동북아 지역의 국제적인 물류전문인력 양성소로 성장하여 광양항의 물동량유치를 통한 항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우리나라의 해외대학 유치 실패 사례

- 2005년도에 인천·부산 등 경제자유구역과 제주 국제자유도시에 해외대학(분교)을 유치하려다 실패함
 -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특별법」에 의한 과실송금 불가능 등 각종 규제로 외국대학들이 기피
 - 외국대학들이 부지와 건물 무상제공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지자체는 재정 형편상 수용 어려움

※ 제주도 조지워싱턴대 분교설립 유치 실패 사례

- 제주도는 2004년 8월 조지워싱턴대 측과 분교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2007년까지 유치협상을 진행함
- 유치가 성사될 경우 제주영어타운 예정부지인 남제주군 대정읍 내 도유지 115만평의 일부를 떼어내 무

상임대학 계획이었음

- 그러나 조지워싱턴대는 부지무상임대만으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학교건물 설립까지 요구하여, 지자체 재정부담으로 최근 유치 포기

※ 제주도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대학 분교설립 유치 실패 사례

- 2006년 10월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대학 제주분교 유치위원회가 대학입학 예비학부과정(1년) 중 6개월의 교육과정을 인정받을 수 있는 '예비학부 어학원'을 설립함
- 제주도는 어학원 설립으로 제주분교 유치를 이끌어 내려하였으나, 분교를 세워도 수익금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대학측에서 적극 나서지 않아 계획이 무산됨

해외대학의 국내유치 애로요인

-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에 의해 해외로의 과실송금이 불가능해 외국교육기관이 기피
 - 비영리법인만이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으며, 해외대학들이 우리나라에 분교를 설치하더라도 벌어들인 수업료 수입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없음
 - 외국인 교수 확보와 학교시설 건립, 질 높은 교육과정 유지 등 기본자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획기적인 유치조건을 내걸지 않는 한 MIT·하버드 등의 세계유수 대학 분교유치는 어려운 실정임
 - 해외에서 이미 교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존 교육기관만 학교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교육기관이 한국에 별도 학교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 학생정원에 따라 일정면적 이상의 교지(校地)와 교사(校舍)를 갖춰야 하는 점도 해외대학 유치를 어렵게 하는 요인임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1. 외국학교법인이라 함은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의해 유아·초중고등 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국가·지자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5조(설립승인) 외국학교법인이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사립학교법에 의해 학교법인의 차입행위가 제한되고 있어, 투자비용을 금융회사에서 빌릴 때 한국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등록금으로 빌린 돈을 갚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100% 대학설립 '불허' 판정
- 기타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복잡한 절차 및 규제로 인해 해외 대학(분교) 유치에 애로요인으로 작용
- 해외대학(분교) 유치를 위한 각종 혜택과 재정적 지원이 부족함
 - 싱가포르의 교수진과 학생 등 고급인력 유치를 위해 대학내 레저·위락·의료시설들을 확충
 - 중국 베이징시는 외국인 고급인력 유치를 위해 해외 인재유치 장려금제도를 시행, 지방도시의 경우 학교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함
- 우리나라 대학은 해외 대학과의 다양한 '협력채널 구축 및 홍보' 부족으로 그 실력에 비해 외국에서의 지명도가 낮음
 - 외국인 유학생을 유인할만한 국제적인 교육 프로그램 마련 및 우수 대학과의 제휴, 합작투자 연구소 설립 등이 부족

IV. 시사점 및 정책개선 과제

- 해외대학(분교) 유치는 급증하는 서비스수지적자규모를 줄이고, 해외로의 인재유출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해결책임
 - 호주는 유학생을 적극 유치해 국제학생의 등록금이 양모 수출액을 앞지를 만큼 국제수지를 개선하는 효과를 보았음
 - 미국은 산업 인력양성과 유학관련 수지개선을 위해 중국·인도 등 아시아 우수인재 및 유학생을 자국으로 끌어들이고 있음
 - 싱가포르의 해외대학 분교 설립, 제휴, 합작투자 연구소 설립, 교육과정 공동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글로벌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해외 우수 인적자원을 유인함
 - 중국은 노팅엄 Ningbo분교 설립을 통해, 학부과정 모집 정원의 50%가량을 Ningbo지역 학생들에게 할당한 결과, 2003년 이후에는 Ningbo시의 우수학생이 대도시 및 해외로의 이탈이 감소함
- 대학(분교) 등 외국 교육기관의 유치는 경제특구와 국제자유도시는 물론 지방 중소도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 우리나라는 제주특별자치구에 건설예정인 영어전문타운에 해외 유명대학(분교)을 유치할 경우 해외 영어유학 수요 흡수와 국제도시 경쟁력 강화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우수 해외대학(분교)과 우리나라 대학과의 자유로운 경쟁, 글로벌 시대에 알맞은 프로그램 마련 및 교수·학생·연구자 등 외국의 우수한 인력 유입을 통해 국가 교육경쟁력 강화를 도모
 - 우리나라는 글로벌시대 인재양성에 필요한 교육과정·정책이 미흡하여 대학의 질적 경쟁력이 떨어지며, 해외대학으로의 진출자 가운데 우리나라로 복귀하지 않는 인력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 해외대학의 국내유치는 국내대학과의 경쟁촉진을 통해 한국 대학교육의 글로벌화와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개선과제

- 우리나라 교육경쟁력 강화와 학교설립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해외로의 과실송금 허용 등 각종 규제완화가 요청됨

- 외국 교육기관 유치를 위해서는 영리법인을 인정해 주고, 수익을 합리적으로 관리·소유·송금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함

- 또한 초기에는 학생 모집이 쉽지 않아 부담이 되므로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내국인 입학비율 제한(50%)을 임시로 확대한 후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가는 것이 바람직

- 우리나라 교육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공교육과 교육서비스산업을 엄격히 분리하고 국내외 자본의 자유로운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

- 국내 대학들은 외국 명문대 학생들이 한국에서 학문적인 성취를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분교 유치 전략 수립 필요

- 미국 아이비리그 명문대들은 금전적인 인센티브보다 본교 학생의 요청에 따라 해외에 분교를 설치하는 경향이 지배적

필·자·소·개

이병욱

고려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경희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 취득하였다. 미국 해리티지재단 객원 연구원, 전경련 기업구조조정지원센터소장, 경제조사부분부장, 기획본부 부분부장 겸 기획팀장을 거쳐 현재 산업조사본부장(상무) 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Korean Financial Controls and Curb-Market Financing of Small and Medium-Sized Industries」(1994, Journal SFSU, School of Business), 「금융실명제 도입실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및 기업체설문조사결과분석」(공저), 「미국의 금융규제완화 추진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등 다수가 있다.